

지금 규슈에서는

“미래 세대에 야구의 즐거움 전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죠”



어린이, 청소년들이 야구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오사다하루야구박물관 내에 설치된 89스튜디오(왼쪽 사진)와 야구에 열광했던 쇼와시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역사관. 오사다하루가 출연한 방송, 광고 등이 상영된다.

소프트뱅크 호크스 제품

■ ‘홀런왕’ 오사다하루야구박물관

통산 868호 홀런 세계신기록 보유
2010년 야후닷컴 내 반원 형태 건설
역사관·기록관·89스튜디오로 구성
구속·도루 도전 등 체험 시설 인기

‘위대한 야구영웅을 기념하는 곳이자 미래세대에 야구의 즐거움과 꿈을 알리는 공간.’

일본 후쿠오카 시 야후도에 위치한 ‘오사다하루야구박물관(이하 야구박물관)’ 이야기다. 오사다하루(王貞治·왕정치)는 지난 1977년 9월 756호 홀런으로 세계신기록을 세워 일본 열도를 들쭉이게 만든 인물이다. 은퇴까지는 통산 868호 홀런의 기록을 세웠다. 현역선수 때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지만 1994년 감독으로 지금의 소프트뱅크 호크스(구 다이에 호크스)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프로야구단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회장을 맡고 있다.

“50년 세월을 야구에 바친 영웅을 기념하는 시설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야구에 대한 영웅의 생각, 정열, 공적을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소프트뱅크 호크스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의 이노우에 이사오 차장은 야구박물관 설립 동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 기념관과 야구박물관을 합친 형태의 계획을 받아낸 오 회장은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업적만 전시하는 것이라면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야구의 매력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동의한다고 했

다. 이노우에 차장은 “야구박물관에 체험시설을 포함시킨 것도 오 회장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친형에게 야구의 즐거움을 배운 개인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2010년 7월 3일 오사다하루야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개관식 인사말에서 오 회장은 “젊은이에게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곳이 되고, 부모·자녀에게는 뭉가에 도전하는 것으로 교감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사관, 기록관, 89스튜디오로 구성된 야구박물관은 야후닷컴 내 외야석을 따라 반원 형태로 만들어졌다. 총 면적 2천150㎡로 규모도 크지만 일본 전후 부흥기인 쇼와시대의 풍경을 재현해서 보여준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역사관의 경우 대만 국적인 오 회장의 집안이 운영했던 중국요리

점과 야구를 열성적으로 시청하는 집 내부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았다.

홍행운영본부의 니시가와 씨는 “당시에는 다른 스포츠나 게임 등이 발달하지 않아 야구와 스포츠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오사다하루의 홀런이 ‘딱’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르며 장면에 열광했던 기억을 가진 40대 이상이 많이 방문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블로그에 마야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보통 박물관은 전시장 중심인데 이곳은 개인과 그 업적을 쇼와시대의 이야기로 풀어낸 점이 좋았다. 당시 식당에서 팔던 고기소비를 그대로 재현해서 판매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야구박물관 방문 소감을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은 체험시

설인 89스튜디오. 오사다하루의 등번호이자 일본어로 야구를 상징하는 ‘89’에서 이름을 딴 이곳은 현역 선수들이 던지는 공 체험하기, 투구 속도 측정, 도루 도전 등 관람객이 야구를 직접 경험해보는 시설을 설치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속구왕 선발대회나 은퇴 선수들이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이벤트도 열리는 장소이다.

이들 시설 외에도 다양한 기획전도 마련된다. 올해에는 호크스 구단 창립 75주년을 맞아 특별전이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열렸다. 내년 1월까지 최근 팀을 은퇴한 사이토 가즈미 선수의 18년 간의 야구인생을 정리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열심히 무대를 뛰어준 선수와 응원했던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전시인 셈이다.

기록, 역사, 체험, 감사가 공존하는 오사다하루야구박물관은 연간 2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다. 현재 야구박물관 입장료는 성인 900엔(한화 약 9천100원)·중학생 이하 400엔(4천400원)이다. 특히 어린이의 야구 사랑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초등 3학년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장(보호자 동반의 경우)할 수 있다.

현재 부산의 고 최동원 선수 기념관 건립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노우에 차장은 “기존의 야구장과 병행하는 형태로 시설을 만들면 미래의 야구팬 육성 차원에서도 더 좋을 것”이라며 “우리 야구박물관도 앞으로 체험시설을 강화해 야구의 즐거움을 더 널리 알리는 장소로 거듭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오카=오마이 기자 chris@busan.com



中 ‘낭비풍조 배격’ 물결에 고급 술·시계 등 사치품 시장 열었다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낭비풍조 척결을 강조하면서 고급 술과 시계 등 고가품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마오타이, 우량에 등 고급 바이주(白酒) 업체 14개사의 시가총액은 연초에 비해 40%가량 줄어들었다. 올해 연초 총 5천872억 8천만 위안(약 102조 원)이었으나 지난 12월17일엔 3천382억 4천만 위안으로 42% 급감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2천490억 위안(약 43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된 것이다.

이는 호화식당 이용 금지, 금주령 등에 따라 값비싼 바이주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4개 바이주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총 784억 3천만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

바이주 업체들은 사치품조 배격 바람을 피해 고가자 제품가격을 낮추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가 공금을 이용한 회식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바이주 업계엔

계속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란 부정부패 및 사치품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스위스 시계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 조사 결과 중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가품 시계는 중국 사치품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판매량이 작년보다 11% 떨어진 270억 위안(4조 7천128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30%의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사치품 시장 전체도 올해는 판매규모가 2% 늘

어나는 데 그칠 예정이다. 베인앤컴퍼니는 “중국 정부가 근검절약을 강조하며 반부패 운동을 계속하면 선물로 많이 이용되던 고가 시계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내년에도 고가 시계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중국으로 향하는 스위스 시계 수출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떨어진 11억 7천만 스위스 프랑(1조 3천821억 원)에 그쳤다. 최용오 기자 choice@-일부행남